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003, Vol. 12, 49-66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김 미 숙 이 강 윤 가 현

순천청암대학 초당대학교 전남대학교

노인보건복지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요약)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본고는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독거노인의 비율 증가에 따라서 파생된 농촌지역 노인들의 식사해결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질적으로 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급식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본 것이었다. 노인들의 응답에 의하면 현재의 경로식당의 운영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지만, 조사결과들은 노인의 건강이나 영양, 경로식당의 접근용이 등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Key words: 경로식당, 노인복지, 무료급식서비스,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40-910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창녕리 195-5번지 김미숙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e-mail 주소는 highborn55@hanmail.net입니다.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도로 전개된 산업화로 인하여 생활환경도 다양하게 변했다. 그러한 변화로 인하여 국민소득의 향상이나 경제발전 등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도 했지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인문제가 발생하였다. 우선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한 비율을 살펴보자면, 1970년도 3.1%에 불과하던 비율이 1990년도까지는 5.1%로 서서히 증가했지만, 20세기 중말부터는 매우 빠르게 높아졌다. 즉 2000년도에는 그 비율이 7.1%로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으며, 2020년도에는 13.2%로 예상되어 머지않아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2001).

산업화사회로 변모하면서 발생시킨 노인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통적인 경로사상의 약화로 인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이다. 곧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의 탈바꿈을 가속화시켰다. 예를 들면, 1981년에는 전체노인 중 노부부 혹은 노인단독으로 생활하는 세대는 20% 이하였지만, 1993년도에는 24%, 1994년도 41%, 1998년도에는 무려 53% 등으로 늘어난 것이다 (박재간·모선희·원영희, 1996; 임춘식, 2000).

아울러 자녀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자녀들의 지원을 받고 살아가는 경우도 줄어들었는데, 그 주된 이유중의 하나는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였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족 구성원들이 노인들을 돌보는 주요한 지원 체계였으며, 그 중에서도 며느리 등이 주된 역할을 담당했다. 그렇지만 기혼 여성의 취업증가는 여성에게 가사, 자녀 양육 등 과중한 역할을 초래하여 노인에게 대한 여성의 보호 기능이 약화되어 버렸다 (이가옥, 1999). 실제로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1970년도 36.9%에서 1994년도 47.7%, 2000년도에는 58.9%로 급증하였다 (동아일보, 2001. 9. 23., 제8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도 낮 동안에는 무의탁 상태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인문제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특히 식욕이라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

는 기본적인 욕구문제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특히 남성노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그들은 음식 장만이나 빨래 등 집안 살림을 해 볼 기회가 전혀 없어서 끼니 해결을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인들이 신체기능이나 정신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장세경, 1998). 특히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한 여성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기능이 약해지면서 시장보거나 요리하기 등 식사 준비가 힘들어져서 식사를 거르는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못하여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퇴직 후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어서 연금이나 퇴직금, 저축, 재산수익 등에 의존하여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으나, 우리나라 연금 수혜자는 2008년에 가서야 9.6%, 2020년에 약 30.0%, 그리고 2030년에 이르러서야 약 50%의 노인만이 공적연금제도에 의해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혜원, 1997, p. 12).

이와 같이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실제로 상당수의 노인들이 영양부족의 문제에 연루되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대부분이 노인성질환이나 영양문제에 연루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채인숙·양일선·이해영·박문경, 2000). 예를 들면, 1999년도의 한 조사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82만 명의 노인들 중에서 27%가 점심을 굶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중앙일보, 1999. 3. 17. 제2면).

물론 1997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저소득층 노인들뿐만 아니라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급식서비스 실시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2000년에는 전국적으로 673개소의 경로식당에서 연간 84만 명에 이르는 노인들에게 급식서비스를 해주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는 급식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노인들의 수에 비해 미흡하고 비체계적인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2001).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최저생활보장이 필요한 빈곤한 노인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욕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보호 및 부양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는 노인문제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임춘식, 2000).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급식서비스는 노령이나 질병, 빈곤 등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서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세경, 1998).

첫 번째 목적은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확보이다. 경제적으로 인하여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주 대상이 되며,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영양을 위한 생활원조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 급식서비스는 또한 친교(만남)를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장세경, 1998; 황진수, 1997). 특히 외출 기회가 적은 방안에 하루 종일 무료하게 있어야 하거나 고독과 소외 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경로식당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벗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역할을 해 심리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디딤돌 구실을 한다. 노인들의 급식 서비스 실시는 가족 구성원들의 노인부양의 의무를 경감시키면서 재가노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노인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윤희, 2001).

본고는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차원의 일환으로 무료급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중소도시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로식당의 이용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경로식당이란 급식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회관에 노인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 (조추용, 1997), 즉 노인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회식형(congregate meals)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외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만을 의미하였다.

연구 방법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

조사대상자 및 조사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의 경로식당에서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식의 수혜를 받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 267명(여성 165명, 남성 102명)이었다 [참고로 순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그 비율은 2002년도에 22,700여명으로 전체의 8.35%를 차지함]. 경로식당의 선정은 순천시청 사회복지과로부터 제공받은 운영현황 자료에 의거했는데, 다섯 곳의 경로식당 중에서 주 5-6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단체들 가운데 종교단체가 아닌 ‘종합사회복지관’과 ‘순천복지경로식당’의 두 곳을 선정했다 (개인 자격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도 산재하지만, 대상선정의 기준은 시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만 정했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를 두 곳의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자로 선정한 후 2002년 7월 중순과 하순에 걸쳐서 조사에 대한 훈련을 마친 학생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40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약 3주일에 걸쳐서 경로식당에서 급식 수혜를 받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성별을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특성들은 결과 편에 소개되었다.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장윤희(2001)가 사용했던 문항들을 토대로 예비조사과정의 노인면담을 통하여 수정·보완된 설문지이었다. 설문지의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비롯하여 조사대상자의 경로식당 이용 및 만족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정보로는 성별, 연령 (60-74세, 75-84세, 85세 이상으로만 구분), 결혼 여부 및 상태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 생존 여부 및 별거, 이혼, 사별), 교육수준, 가족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들이 이용되었다.

경로식당 이용에 관련된 문항으로는 경로식당에 오실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경로식당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10분 이하, 10-20분, 20-30분, 30-40분, 40분 이상),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빈도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이유 (점심 준비가 귀찮아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재미에, 취사능력이 없어서, 생계가 막연해서, 따뜻한 점심을 먹기 위해, 기타),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날 점심을 해결하는 방법 (끓는다, 간단한 간식으로 때운다, 사 먹는다, 집에서 먹는다, 기타), 경로식당을 이용한 후 생활의 주된 변화 (경제적 여유 생김, 건강 좋아짐, 삶의 의욕 생김, 소외감 해소, 대인관계 넓어짐, 기타), 경로식당에서 점심 대접을 받을 때의 주된 느낌 (행복함, 고마움, 부끄러움, 당연함, 별다른 느낌이 없음), 경로식당 이용 경험에서 가장 만족하는 사항 (따뜻한 점심,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 질 좋은 식사, 식사비용절약, 기타), 경로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양과 질, 경로식당에서 드시고 싶은 국이나 반찬, 경로식당에서 제공하는 급식 시간 (긴 편이다, 보통이다, 짧다), 경로식당의 위생상태 (깨끗하다, 보통이다, 불결하다), 경로식당에서 이용하는 식기류의 청결정도 (깨끗하다, 보통이다, 불결하다), 경로식당 종사자들의 태도 (친절, 보통, 불친절), 최근 식사에서 제공된 국과 반찬의 수, 식수준비 형태, 식사이외에 제공받고싶은 서비스 등이었다.

결 과

조사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경로식당 이용 실태를 먼저 소개하고, 경로식당 이용실태의 세부적 사항에서 일반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성별을 제외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소개되어 있다. 경로식당 이용자들의 연령 및 학력 분포를 보면,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전체의 65%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정도가 83%를 넘고 있다. 또 배우자와 사별하여 홀로 된 노인들의 비율이 65%이며, 또 가족형태로는 홀로 살고 있는 노인들이 전체의 37% 그리고 노인부부만이 살고 있는 경우가 24% 정도였다. 그러나 경로식당 이용자들 중에서 국민기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

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비율은 20% 미만으로 절대다수가 일반노인임을 알 수 있다.

경로식당의 이용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표 2>에 소개하였다. 먼저 경로식당을 이용할 때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일부 남성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전체 남성의 32.3%)을 제외하고 모두 걸어서 온다고 응답했다. 이는 자동차 등 대중 교통수단에 의존하면서까지 경로식당을 이용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으로 가정할 때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경로식당을 찾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로식당에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응답을 보면, 30분 이상 걸린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18.6%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가까운 곳에서 경로식당을 찾을 수 있다는 추측과 거리가 먼 것으로 해석된다.

어느 정도 자주 경로식당을 이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의 약 34% 정도가 주 5회 이상 경로식당을 이용한다고 답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취사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즉 대다수가 따뜻한 점심을 먹기 위해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특성	구 분	n (%)	참고
연 령	60 ~ 74세	93 (34.8)	
	75 ~ 84세	127 (47.6)	
	85세 이상	47 (17.6)	
결혼상태	배우자 생존	85 (31.8)	미혼자 및 이혼으로 홀로 사는 경우는 없음
	별 거	8 (3.0)	
	사 별	174 (65.2)	
학 력	초등학교 졸업	222 (83.2)	대학교 진학 경험자는 없음
	중학교 졸업	34 (12.7)	
	고등학교 졸업	11 (4.1)	
가족형태	홀로 산다	99 (37.1)	
	배우자하고만 산다	65 (24.3)	
	자녀와 동거	103 (38.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여	52 (19.5)	부는 일반 노인임
	부	215 (80.5)	

<표 2> 경로식당 이용 실태

	항목구분	n (%)	참고
교통수단	도보	234 (87.6)	자전거 이용자는 모두 남성임
	자전거	33 (12.4)	
걸리는 시간	10분 이하	86 (32.2)	
	10 ~ 20분	74 (27.7)	
	20 ~ 30분	60 (22.5)	
	30 ~ 40분	27 (10.1)	
	40분 이상	20 (7.5)	
매주 이용횟수	1 ~ 2회	22 (8.2)	
	3 ~ 4회	48 (18.0)	
	5 ~ 6회	87 (32.6)	
	매일	110 (41.2)	
이용하는 이유	점심 준비가 귀찮아	34 (12.7)	
	친구들과 어울리는 재미	69 (25.8)	
	취사능력이 없어서	13 (4.9)	
	따뜻한 점심 먹기 위해	121 (45.3)	
	기타	30 (11.2)	
경로식당 이용시 점심해결 방법	보통 굶는다	27 (10.1)	유료 식당에서 사먹는다는 반응은 없음
	간단한 간식	21 (7.9)	
	집에서 먹는다	193 (72.3)	
	기타	26 (9.7)	
경로식당 이용 후 생활의 변화	경제적 여유	13 (4.9)	
	건강 좋아짐	77 (28.8)	
	삶의 의욕 생김	23 (8.6)	
	소외감 해소	22 (8.2)	
	대인관계 넓어짐	69 (25.8)	
	기타	63 (23.6)	
경로식당 이용 시 느낌	행복한 느낌	12 (4.5)	부끄러움이나 당연함의 반응 없음
	고마운 느낌	246 (92.1)	
	느낌이 없다	9 (3.4)	
가장 만족하는 사항	따뜻한 점심	138 (51.7)	
	만나는 즐거움	90 (33.7)	
	질 좋은 식사	15 (5.6)	
	식사 경비절약	10 (3.8)	
	기 타	14 (5.2)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

서(45.3%)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재미 때문에(25.8%) 등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였다. 또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점심식사를 해결하는가에 대해서는 유료식당에서 사먹는다는 응답은 없었고, 대부분 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응답자의 약 10%는 특별한 방안이 없어서 굶어버린다고 했다.

경로식당을 이용한 후 생활 속에서 나타난 변화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주된 것이라고 꼽는가의 물음에서는 식사를 거르지 않아서 건강이 좋아졌다 또는 식당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다보니 대인관계가 넓어졌다고 반응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또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경로식당 이용에 고마움을 느끼고, 따뜻한 음식에 가장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음식의 질과 양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즉 질이 좋지 않다거나 양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사대상자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하면서 느낀 무료급식 서비스 상태에 대한 내용은 <표 3>에 제시되었다. 먼저 평소 드시고 싶은 국이나 반찬에 대한 응답 내용을 보면, 먼저 국으로는 된장국의 비율(42.7%, $n = 11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기 국이나 미역국 등보다 된장국을 더 선호하는 것은 식생활의 습관이 된장국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드시고 싶은 반찬으로는 생선이나 나물 고기 반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또 급식시간이나 식당의 위생상태, 식기류 청결 정도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식당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모두 긍정적으로 답했다(친절하다 88.8%, 보통이다 11.2%) 아울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식사에서 국이나 반찬의 종류는 3-4가지라는 응답비율(80.5%)이 가장 높았으며, 준비된 식수는 끓인 물이라는 비율(81.7%)이 가장 높았다.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일반노인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상황이 다른가를 <표 4>부터 <표 7>까지 제시하였다. 또 경로식당을 이용할 때의 교통수단, 즉 자전거를 타고 오는 비율에 대해서는 두 집단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 내용은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로식당에 오는

<표 3> 점심제공에 대한 인식 [*n* (%)]

	항목구분	<i>n</i> (%)
드시고 싶은 국	고기국	73 (27.3)
	미역국	42 (15.7)
	된장국	114 (42.7)
	기 타	38 (14.2)
드시고 싶은 반찬	생선	78 (29.2)
	나물	54 (20.2)
	육고기	58 (21.7)
	부침	11 (4.1)
	찌개	17 (6.4)
	기 타	49 (18.4)
급식시간	긴 편이다	41 (15.4)
	보통이다	226 (84.6)
	짧은 편이다	0 (0.0)
식당의 위생상태	깨끗하다	228 (85.4)
	보통이다	39 (14.6)
	불결하다	0 (0.0)
식기류 청결도	깨끗하다	237 (88.8)
	보통이다	30 (11.2)
	불결하다	0 (0.0)
국·반찬의 종류	2가지 이하	30 (11.2)
	3 ~ 4 가지	215 (80.5)
	5 ~ 6 가지	22 (8.2)
식수 준비상태	생수	37 (13.9)
	끓인 물	218 (81.7)
	기 타	11 (4.5)

<표 4> 경로식당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에 따른 이용자 빈도 및 비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i>n</i> = 52)	일반노인 (<i>n</i> = 215)
10분 이하	7 (13.5)	79 (36.7)
10~20분	20 (38.5)	54 (25.1)
20~30분	18 (34.6)	42 (19.5)
30~40분	4 (7.7)	23 (10.7)
40분 이상	3 (5.8)	17 (7.9)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20분 이내라고 응답하였지만 (<표 4> 참조), 10분 이내라는 응답, 즉 경로식당 근처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보다도 일반노인들에서 더 높은 편이었다 ($\chi^2 = 14.60, p < .01$).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빈도를 살펴볼 때 매일 이용하는 노인들이 전체의 40%를 넘었고 또 전체의 약 40% 정도가 주 5일 이상 이용하고 있었다 (<표 2> 참조). 그러나 그 이용 빈도에서 일반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의 차이가 없었다 ($\chi^2 = 1.60, n.s.$). 그렇지만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이유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5> 참조). 즉, 일반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모두 따뜻한 점심이라는 반응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은 귀찮아서라는 비율이 일반 노인보다 높았던 반면, 어울리는 재미라는 반응 비율은 일반 노인보다 더 낮은 편이었다 ($\chi^2 = 12.63, p < .05$).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게 된 이후 가장 주요한 생활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 경로식당을 이용할 때의 느낌에 대한 질문, 경로식당을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하는 사항 등에서 두 집단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또 경로식당에서 가장 드시고 싶어하는 국이나 반찬의 종류에 대한 반응은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표 5>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이유 [n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n = 52$)	일반노인 ($n = 215$)
귀찮아서	10 (19.2)	24 (11.2)
어울리는 재미	8 (15.4)	61 (28.4)
취사능력 없어	5 (9.6)	8 (3.7)
따뜻한 점심	19 (36.5)	102 (47.4)
기 타	10 (19.2)	20 (9.3)

<표 6> 가장 드시고 싶은 국 종류 [n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대상자 (n = 52)	일반노인 (n = 215)
고기국	21 (40.4)	52 (24.2)
미역국	9 (17.3)	33 (25.4)
된장국	15 (28.9)	99 (46.1)
기타	7 (13.5)	31 (14.5)

<표 7> 식사 이외에 받고싶은 서비스 [n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대상자 (n = 52)	일반노인 (n = 215)	합 계 (n = 267)
수지침 · 지압	29 (55.8)	92 (42.8)	121 (45.3 %)
게이트볼	3 (5.8)	18 (8.4)	21 (7.9 %)
이 · 미용	8 (15.4)	25 (11.6)	33 (12.4 %)
장기 바둑	4 (7.7)	27 (7.9)	21 (7.9 %)
노인 상담	3 (5.8)	9 (4.2)	12 (4.5 %)
기 타	5 (9.6)	54 (25.1)	59 (22.1 %)

차이도 없었다. 그렇지만 국의 종류에 대한 응답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된장국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의 경우 된장국에 대한 선호 비율(28.9%)보다도 고기가 들어있는 국을 선호하는 비율(40.4%)이 더 높았다 (<표 6> 참조). 그 이유중의 하나는 생활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기가 들어있는 국을 드실 기회가 더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반응에서도 두 집단 모두가 충분하다 또는 긴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식당이나 식기류 등에 대한 위생상태도 불량하다고 반응한 응답자는 두 집단 모두 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

명도 없었다. 또 <표 2>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식사 이외에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수지침이나 지압이라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이 약간 더 높았다. 이는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님과 동시에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의 경우 의료비 지출을 아끼고 살아가고 있음을 짐작한다. 역시 이용이나 미용 서비스를 원하는 것도 경비 지출을 절약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논 의

본고는 비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재가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서비스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하여 경로식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태를 살펴본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재가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치매나 중풍, 만성퇴행성질환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제도를 다루지 않는 상태에서 경로식당의 운영실태를 살펴본 것이었다. 연구자료는 중소도시에 해당되는 전남 순천시에서 수집하였으며, 경로식당의 선정은 시청의 협조로 주 5-6일 정도 무료급식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으로 하였다.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들과 함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하나씩 점검해보자면, 첫째로 경로식당을 어느 정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조사의 경우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연령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거의 ⅔에 가까운 경로식당 이용자가 75세 이상이었는데, 이는 대전광역시에서의 조사(장윤희, 2001)와 매우 흡사한 결과였다. 또 이용자들 중에서 8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도 17.6%나 되었는데, 이는 거동에 큰 불편이 없더라도 건강상태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는 노인들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경로식당에 오는 노인들 중에서 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전혀 없었으며, 남성들의 일부(32.3%)만 자전거를 이용하여 식당

을 방문할 뿐이었다. 물론 경로식당을 이용할 때 걸어서 온다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20분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겨울철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고령자들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도보로 식당까지 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경로식당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차량을 지원해주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대부분이 기초국민생활보장의 수급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생활보장의 수급을 받지 않는 일반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무료급식서비스가 생활보호대상이나 행려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실제로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대다수는 점심을 먹을 형편이 되지 않아서 무료급식서비스를 실시하는 경로식당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식당을 방문한다는 응답을 했다. 이와 같은 반응 비율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만이 살아가는 세대가 늘어나고 또 자녀가족과 살더라도 낮 시간동안 노인만이 집에 남아 있어야 하는 등의 가족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서비스는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이나 저소득층 노인으로 무료급식서비스를 제한하게 될 경우 급식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노인들이 느끼게 되는 열등감 혹은 낙인(stigma)은 개인의 존엄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크다 (성규탁, 1990, p. 224). 그와 같은 이유로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무료급식서비스는 생활보호대상 혹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주 대상이기는 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급식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 대부분이 빈곤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이 사라졌을 때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인 부담이 없이 또 자긍심을 유지한 상태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노인들의 영양상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인들의 영양문제는 일반인들과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

양과잉이나 영양부족으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노인들에 관한 영양문제는 영양과잉이 아니라 영양부족에 해당된다. 자녀가족들과의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던 과거에는 빈곤층이 아니었다면 영양상태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는 매일 식사 준비를 노인 스스로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장보기에서부터 요리, 설거지 등까지의 일련의 작업이 필요한 식사준비는 나이가 든 여성에게도 쉽지 않는 일이며 또 홀로 거주하는 남성 노인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고영수, 1993).

역시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생활수준의 고저나 남녀를 막론하고 먹는 것에 흥미가 없어질 수 있으며, 더욱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식사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영양실조의 위험도 커진다. 그러므로 동시대의 노인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규칙적이고 계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내용을 볼 때 현재 경로식당에서 공급되고 있는 반찬이나 국이 3~4종류에 불과하다. 물론 질적인 면을 고려한 조사는 아니었지만, 수량에서는 영양부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특히 여자노인의 경우 칼슘과 철분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보다 더 쉽게 악화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을 함께 고려한 식사배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경로식당에 오지 않는 날은 굶는다고 하는 노인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전체의 10.1%: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3.5% 및 일반노인 9.3%)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세끼의 식 습관을 권장해야 한다고 보며, 그 날 오지 않는 노인들을 위해서 차량을 이용한 도시락 및 우유와 빵을 준비하여 찾아가는 자원봉사자와 연결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지역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다양하게 요구되는 개인적 서비스는 공적 복지체제로만 대응하기에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한 형편이므로 지역사회 내의 민간자원 복지체계

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는 단순히 노인의 건강유지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이 노인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지역사회가 참여할 때 잊지 않아야 할 사항은 노인들의 급식서비스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급식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배경, 즉 신체 기능의 장애, 생활 의욕의 저하, 불균형한 식생활로 인한 건강 문제, 생활의 고립화 등 생활 제 문제의 결과로 식사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송근원 · 김태성, 1995).

마지막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무료급식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지만, 복지사업이 단순히 급식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업과도 활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급식과 함께 실시되기를 원하는 사항을 물었을 때 가장 보편적인 응답은 수지침이나 지압 등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였다. 이는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건강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나온 응답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자의 비율이 더 높아져갈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간과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종합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급식서비스는 생명, 생활의 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때때로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좋은 그런 성격의 서비스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가정 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을 하는 노인인 경우 1일 1회의 식사만이라도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풍족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서비스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급식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들끼리 협의체를 갖추어 식단이나 식사배급방법, 이용자의 반응이나 건강상태, 요구사항,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송근원 · 김태성, 1995).

참 고 문 헌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

- 고영수 (1993). **혼자 사는 노인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간 · 모선희 · 원영희 (1996).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향**. 노인복지정책연구 96-04. 서울: 한국 노인문제 연구소.
- 보건복지부 (2001).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지침**. 보건복지부.
- 성규탁 (1990).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법문사.
- 송근원 · 김태성 (199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남출판.
- 이가옥 (1999).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서울: 나남출판.
- 이혜원 (1997). **노인복지론**. 서울: 유풍출판사.
- 임춘식 (2000).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한국노년학**, 20 (1), 37-54.
- 장세경 (1998). **고령자 급식서비스의 전문성 재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경로식당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윤희 (2001). **경로식당 이용노인 실태조사연구: 대전광역시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추용 (1997). 재가노인을 위한 급식서비스: 일본의 사례에서 고찰. **노인복지정책연구**, 2 (1), 203-247.
- 채인숙 · 양일선 · 이해영 · 박문경 (2000).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한 급식서비스 프로그램 평가. **대한영양사학회지**, 6 (2), 57-70.
- 황진수 (1997). 노인여가문화정책의 활성화 방안. **노인복지정책연구**, 2 (1), 53-89.

Gratuitous Meal Services for the Elderly People

Mi-Suk Kim

Department of Health & Welfare for the Aged
Suncheon Cheongam College

Gang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dang University

Gahyun Yo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proposals of improving gratuitous meal systems for the elderly people. Thus, 267 elderly people, who used to eat their lunch at the restaurants that open only for the elderly people free of charge, were asked how often they visited the restaurants, what kinds of transportation they used to get there, and how they liked the services at the restaurants such as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meals as well as hygienic conditions of both restaurants and meals. The major reason of visiting the restaurants at lunch time was to meet the other folks, that is to say, to keep their social interactions, irrespective of their economic status. All the people, except a part of male respondents who were using their bicycles, answered to get the restaurants on foot. For the services at the restaurants, most visitors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meals and the hygienic conditions.

(논문접수일: 2003년 5월 7일)

(수정논문접수일: 2003년 6월 19일)

(논문게재승인일: 2003년 6월 27일)